



# 가요계 대형 여성 솔로 가수들 컴백 줄이어

### ‘원조디바’ 엄정화 부터 이효리·김윤아·이소라 까지

대형 여성 솔로 가수들의 컴백이 잇따르고 있다. 걸그룹이 대중음악 시장을 장악하면서 근래 활동이 드물었다.

‘원조 디바’ 엄정화는 8년 만인 오는 27일 새 앨범을 발표한다.

타이틀곡은 댄스 장르다. 싱어송라이터 겸 프로듀서 윤상이 작업했다. 내년엔 완성될 앨범으로 이번 건 파트1 성격이다. 파트2는 내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앨범 발매 전날인 26일 SBS ‘2016 SAF 가요대전’을 통해 컴백 무대를 선보인다. 그 동안 가수로서 걸어온 발자취를 기념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된다.

엄정화를 잇는 디바로 통했던 이효리는 4년 만인 내년 컴백한다. 2013년 정규 5집 ‘모노크롬’ 이후 3년간의 휴식기를 마치고 본격적인 음악 활동에 나선다.

1998년 그룹 ‘핑클’로 데뷔한 이효리는 대표적인 ‘1세대 아이돌 그룹’ 출신 문화 아이콘으로 통했다. 무대에서는 섹시미를 강조한 춤과 노래,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소탈한 면모를 뽐내며 인기를 누렸다.

201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아이유 이후 대형 여성 솔로 가수가 부재한 상황에서 두 사람의 컴백이 주목된다.

1세대 아이돌 그룹들의 컴백 등과 맞물리면서 과거에 대한 향수, 두 사람의 음반과 무대에 대한 애정이 맞물리면서 이번 컴백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두 사람 모두 인기 프로듀서와 새로운 작업을 하는 것도 특징이다.

윤종신이 이끄는 미스틱엔터테인먼트와 음반 계약을 맺은 엄정화는 아이유, 가인 등을 기획한 조영철 프로듀서와 손

잡았다.

이효리는 자신에게 황금기를 안긴 ‘데미닛’의 김도현 작곡가와 함께, 작곡가 겸 키보드 연주자 김희정 작곡가와 함께 작업할 예정이다.

가요계 관계자는 “오랜만에 활동하는 만큼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고 봤다.

무대 위 화려한 모습으로 주로 기억되는 엄정화, 이효리뿐 아니라 앨범으로 더 자주 회자되는 여성 솔로 뮤지션들도 잇따라 컴백했거나 컴백을 앞두고 있다.

밴드 ‘자우림’의 보컬 김윤아는 이달 8일 네번째 솔로 프로젝트 앨범 ‘타인의 고향’을 발표했다.

그녀가 솔로 정규 앨범을 발매하는 건 2010년 세번째 솔로 앨범 ‘315360’ 이후 6년 만이다. 통원적인 사운드와 이 앨범은 타인의 고향에 공감할 수 있는 사회 안에서 비로소 개인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메시지가 현재와 맞물리며 공감을 얻고 있다.

가수 이소라는 신곡이자 늦어도 내년 초 발매될 정규 9집 수록곡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를 지난달에 공개, 아이돌 그룹이 장악한 실시간 음원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김동률의 작사, 작곡한 곡으로 김동률 표 서정적인 선율과 애절한 가사 위 이소라 애절한 음색이 어우러졌다.

약 2년 반 만에 새 정규앨범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소라는 발라드, 재즈, 록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 왔다.

가요계 관계자는 “최근 걸그룹이 득세하면서 여성 솔로 가수의 입지가 좁아졌는데 이들 대형 뮤지션들의 잇따른 컴백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가요계의 다양성에도 보탬이 된다”고 봤다.

## 전라북도 통합 자선가연맹 초대회장에 최병선씨 취임

전라북도 통합 자선가연맹 초대회장에 최치과의원 최병선(사진)회장이 취임했다.

15일 오프리스웨딩홀에서 열린 전라북도자선가연맹 초대 회장 취임식에서 최 회장은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으로써 자선가의 발전과 새로운 코스 개발을 약속했다.

최 회장은 지난 9월 2일 전라북도 통합 자선가연맹 창립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취임 당시 최 회장은 꿈나무 지원과 육성을 위한 발전기금 2000만 원을 쾌척하는 등 앞으로 자선가의 활성화 뿐 아니라 연맹의 재정적 건전성을 위해서도 노력을 경주할 방침을 밝혔다.

최 신임회장은 “누구나 자선가를 쉽게 접하고 즐기도록 일반인 참여 확산과 안전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근기자



## 전북체육인 한마음 워크숍 ‘성료’

전북체육인은 역량강화와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마음 워크숍이 15일 남원 지리산하이츠콘도에서 열렸다.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에는 회원 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 임직원과 지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과 화합,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주제로 진행됐다.

전라북도체육회장 송하진 도지사를 대신해 참석한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지도자 여러분들의 사명감과 열정이 있었기에 전북체육이 금년 한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그 사명감과 열정이 전북체육의 큰 근간이라고 생각한다”며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다.

/김민근기자

## 전북체육의 큰 별 조석인 상임고문 별세

전북체육에 평생을 바친 조석인 전북체육회 상임고문이 향년 80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전북체육회는 조석인 상임고문이 14일 별세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조 상임고문은 1983년부터 6년 동안 전북체육의 수장을 맡아 체육의 중흥과 엘리트 체육의 신뢰역할을 해왔다.

조 상임고문의 빈소는 원광대학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금일 오전 발인이 진행된다. 장지는 군산 임피 봉황공원 묘지이다.

/김민근기자

# 국립태권도박물관 ‘태권도, 세계와 마주하다’ 기획전

### 오늘부터 내년 8월 27일까지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성태, 이하 재단)은 1960년대 이후 태권도의 발전과 대중화되는 과정을 담은 기획전시 “태권도 세계와 마주하다”展(전)을 개최한다.

오늘부터 내년 8월 27일까지 태권도원 국립태권도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광복 이후 전국에 산재했던 태권도 도장들이 1960년대 대한태수도협회가 수립되면서 조직화되고, 이후 1970년대부터 國(국기)로 보편화·대중화되는 과정을 조명하는 기획전시를 연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광복 이후 최초로 발행된

무에 관한 저서인 ‘화수도교본’과 1963년 대한태수도협회가 수여한 전국 중화교단체 대항전 ‘우승트로피’를 비롯해 시드니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김경훈 선수의 메달부터 베이징 올림픽 차동민 선수 금메달, 리우 올림픽 김태훈·이대훈·차동민 선수의 동메달까지 약 400여점의 주요 기록물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기획전시 기간 태권도원 국립태권도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은 1963년 대한태수도협회가 수립되고 1970년대 국기원과 세계태권도연맹이 연이어 창립되면서 태권도가 빠르게 경기화 되는 과정을 유물과 사진 등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재단 김중현 사무총장은 “국립태권도 박물관이 공간 꾸준히 수집한 양질의 태권도 관련 유물을 관람할 수 좋은 기회이다”며 “박물관에 상시 전시되고 있는 무예도보통지를 비롯해 올림픽 메달 등 태권도 유물 진품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이번 기획전에 많은 관람을 바란다”고 했다.

한편, 재단은 이번 기획전시의 공신력과 높은 수준을 선보이기 위해 지난 9월 태권도계 및 박물관계 주요 인사를 중심으로 전시 자문회의를 거치는 등 태권도인 뿐만 아니라 일반 관람객들이 관람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했다.

/무주=전문선기자



##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감동받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